

93년 창립 ... 5천여 회원 활동 양성

#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는 199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정보처리응용학회로 당시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출범하여, 1995년 1월 한국정보처리학회로 개칭되어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물심양면 도와주신 여러 회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창립 7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최고의 학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학회는 1993년(제1대) 초대 회장 성기중사장(포스데이터)을 비롯하여 1995년 제2, 3대 회장 남궁석의원(새 천년민주당), 1999년 제4대 회장 조이 남전무(금융결제원), 그리고 현 회장 오길록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재임하면서 학회를 발전시켜 왔다.

## 임원 50% 기업체 대표로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처리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보처리 분야의 구조적인 취약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 국내 정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와 관련 학자들이 한자리에 만나 자유롭게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논하며 연구 결과를 토론하기 위한 모임으로 발전한 것이 우리 학회의 설립 동기이다.



吳吉祿  
〈한국정보처리학회회장〉

학회의 주요 활동은 국가가 지향하는 첨단 정보처리산업과 기술혁신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해

- 정보처리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 정보처리 기술의 산학연 협동의 내용을 기하여
- 정보처리 기술의 국제화와 표준화
-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현재 학회는 15개의 연구회를 비롯하여 1개의 지부, 6개 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창립 당시 2백여명이었던 회원은 5천1백여명으로 증가하여 다른 어느 학회에도 뒤지지 않는 회원의 결집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사) 가운데 약 50%를 기

업체 대표로 선임하여 학회의 취약점인 산학연 연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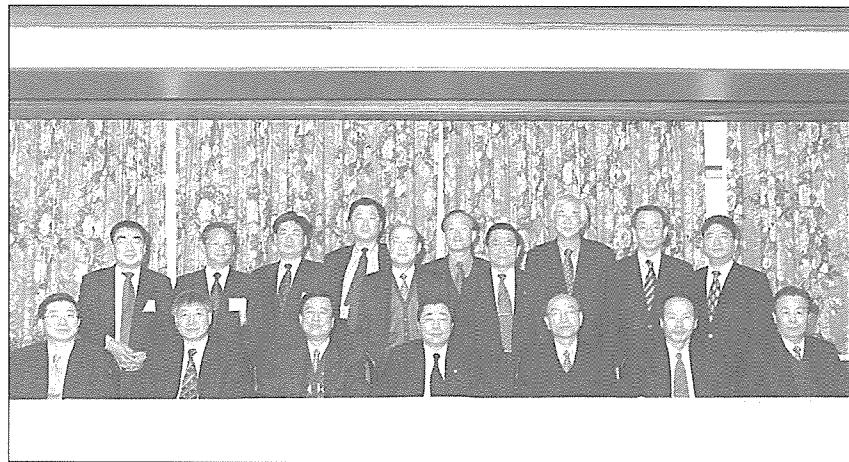
학회에서 발간되는 「정보처리학회지」는 지난 1994년에 창간되어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 학회지는 매호마다 특집 주제를 정해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통해 발간되며, 내용 또한 상당히 우수하여 정보처리기술사 시험에 소개가 될 만큼 내용면에서도 알차고, 정보 처리 기술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학회지이다.

논문지의 경우는 매월 발간되고 있으며, 매권당 3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폭주되는 논문의 적체 해소를 위하여 논문지 특집호를 연 4회 발간하는 등 연간 5백여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 봄·가을 종합학술대회 열어

학회의 학술활동으로는 연 2회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총회를 겸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춘계때는 주로 서울 근교의 대학교에서, 추계는 전국 각 대학에서 유치하여 개최하게 된다.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결과가 구두 및 포스터로 나뉘어 발표되고,

93년 출범한 한국정보처리학회는 창립 당시 2백여명이던 회원이 5천여명으로 늘어 양성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다. 94년 창간된 「정보처리학회지」는 격월간으로, 논문지는 매월 발간하여 연간 5백여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는 매년 봄·가을로 나누어 총회를 겸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공동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인터넷 교육인 실버넷 운동도 펼치고 있다.



「소프트엑스포 '99 컨퍼런스」 관계자들의 모임(1999. 12. 6)

이와 병행하여 참가자들에게 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튜토리얼 및 특별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IT21(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199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개발과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전자,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의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의 접목과 기술분야에 대한 신 정보기술을 관련 학계(정보처리), 전자공학, 정보통신 등에 확산시켜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과 방안을 구현시키고 각 국의 정보기술 관련분야의 핵심 사례와 그 파급효과를 국내에 소개시키기

위함이다.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자 및 업계의 대표를 초청하여 연구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처음 행사는 1996년 6월 12일~13일 호텔롯데월드에서 인터넷과 비즈니스 관련 주제로,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5일~16일 호텔롯데월드에서 벤처 및 전자상거래, 보안 관련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또한 본 학회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동으로 지난 2년간 소프트엑스포를 개최해오고 있다.

### 올해부터 실버넷 운동

소프트엑스포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1세기 정보선진국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 컨퍼런스, 대국민 캠페인 등의 다양한 기능을 망라한 소프트웨어 종합 박람회로서 학회는 이중에서 컨퍼런스 부분을 맡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본 학회는 금년도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실버넷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 민간운동으로서 전국의 8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는 운동이다.

현재 2차 무료 인터넷 교육이 실시중이며, 차후 교육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한 실버 전문 커뮤니티 집단을 만들어 국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 학회는 국내외를 막 라한 다양한 학술활동 및 대외적인 행사를 추진하여 정보처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신 정보기술의 보급과 함께 21세기 정보 강국으로 가기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⑦